

## J. Js Lee 컬렉션의 미적 특성 분석

최윤미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요약

한국 패션은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진 디자이너의 발굴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 현재 런던 패션 위크에서 활동하는 신진 디자이너로 이정선, 최유돈, 레지나 표를 관심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 이정선의 J. Js Lee 브랜드를 선택하여 현지에서 브랜드를 런칭하고 성장한 과정을 분석하고 디자인 고유 특성과 미적 특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정선 디자이너와 인터뷰, 현지 언론에 언급된 패션 잡지 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내용은 브랜드의 런칭 과정, 발표된 13개 컬렉션의 특성과 주제 분석, 디자인의 주요 특성 추출, 미적 특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J. Js Lee 브랜드는 개인적 요인으로 모델리스트로서의 경력과 런던에서 디자인 수학, 외부적 요인으로 국내외 신진 디자이너 지원 프로그램과 영향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현지에서 런칭이 가능했으며 디자인의 주요 특성은 단순하고 장식이 없는 깔끔한 외관의 절제된 형태, 팝업 칼라와 엠보싱 기법의 형태로 대표되는 차별화된 신비한 패턴, 여러 겹을 걸치기, 테일러링의 직선적인 남성적 요소의 사용, 일상적 소재의 변용, 좌우, 앞뒤의 길이와 모양이 다른 비대칭 구성이다. 이를 통해 미니멀리즘과 차별화된 클리니즘, 이전과 다른 구성을 통한 역설과 반전의 방식, 잘 드러나지 않아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통한 위트 있는 표현이 가능하며 이는 J. Js Lee 브랜드만의 미적 특성이자 정체성이다. 해외에서 브랜드를 런칭한 신진 디자이너에 대한 패션 전문가의 학술적 논의와 분석은 후속 디자이너 육성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J. Js Lee 브랜드, 이정선, 클리니즘, 신진 디자이너, 런던 패션 위크

### I. 서론

한국 패션 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컨셉 코리아’, ‘서울즈 텐 서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디자이너를 육성하고자 하며, 한국이 패션 트렌드의 수동적 수신지에서 벗어나 세계 패션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연관된 의미 있는 사례로서 런던에

서 브랜드를 런칭하여 글로벌 패션 시장에 진출한 경우로 이정선, 최유돈, 레지나 표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인지도를 높인 후 이를 발판으로 해외 진출을 꾀하는 이전과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패션 디자이너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파리 혹은 런던의 해외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두각을 드러내는 우리나라 신진 디자이너에 관한 자료는 부족한 편이다. 최근 한국의 신진 디

본 논문은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교신저자: 최윤미, [ymchoi@cnu.ac.kr](mailto:ymchoi@cnu.ac.kr)

접수일: 2015년 7월 19일, 수정논문접수일: 2015년 8월 22일, 게재확정일: 2015년 9월 14일

자이너인 이석태<sup>1)</sup>, 최철용<sup>2)</sup>, 스티브 J. & 오니 P.<sup>3)</sup>의 연구가 있으나 이들 디자이너와 달리 해외 패션 시장에서 브랜드를 런칭하여 글로벌 무대를 상대로 활동하고 있는 신진 디자이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런딩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선 디자이너의 브랜드 J. Js Lee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정선은 ‘질 샌더를 이을 차세대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라 불리며 2010년 FW 런칭부터 2015년 FW까지 런던 패션 위크에서 컬렉션을 발표하고 있다. 연구 내용으로 글로벌 환경에서 브랜드의 런칭 과정, 컬렉션의 시즌별 특성을 밝히고 정체성을 이루는 주요 디자인 특성을 추출하여 J. Js Lee 디자인을 심도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J. Js Lee 브랜드 런칭이 가능했던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 둘째, 현재까지 발표된 13개 컬렉션을 분석하여 디자인을 구성하는 주요 특성을 추출하며 셋째, 이정선 작품의 정체성을 논하기 위하여 미적 특성과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2011년 7월에 1차 인터뷰를 진행하고 1차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2012년 7월에 프로파일, 정체성, 디자인 특성에 관한 질문지를 만들어 2차 서면 인터뷰를 하였다. 보충 질문을 위해 2013년 6월에 디자이너와 3차 인터뷰를 행하였다. J. Js Lee 브랜드의 홈페이지 자료, 2010년 FW 부터 2015년 FW 까지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잡지와 구글 검색을 통해 J. Js Lee 컬렉션에 대한 보그, 엘르, 텔레그래프지 등 국내외의 주요 패션 잡지의 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한 신진 디자이너의 성장 과정과 정체성, 미적 특성에 관한 이해를 돕고, 신진 디자이너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여 보다 세분화된 한국 패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세계적 디자이너로 성장하고자 하는 후속 세대에게 해외 진출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길잡이가 되고 관주도적 육성 프로그램과 더불어 교육 사례로 활용됨으로써 차세대 육성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J. Js Lee 브랜드 성장의 배경

해외에서 브랜드 런칭은 쉽지 않으며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이루어질 수 있다. J. Js Lee 브랜드의 런칭이 가능했던 여러 가지 요인 중 개인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이정선 디자이너의 개인적 요인

이정선이 런던에서 주목받는 신진 디자이너로 활동하게 된 요인은 모델리스트로서의 경력과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s and Design(이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의 석사과정 이수라고 할 수 있다. 이정선은 한국에서 의류학을 전공한 후 캐주얼 브랜드의 패턴실에서 모델리스트로 근무하였다. 모델리스트는 이전까지 대부분 도제식으로 후임을 키우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이 모델리스트로 취업하고 일을 익히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패턴에 관한 전문성을 키우고자 근무 시간 후 선임이 작업한 패턴을 그대로 그려 보고 연구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한다. 모델리스트로서 5년 정도 지낸 후 다른 나라의 패션 산업에 대한 호기심에 서울 모델리스트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고 유럽의 패션 학교 탐방 기회를 갖게 된다. 이를 계기로 런던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의 ‘Postgraduate Innovative Pattern Cutting Course’에 지원하고 15주의 패턴 교육 과정을 마친 후 런던 소재 Kisa London 브랜드에서 수석 패턴사(Head Pattern Cutter)로 2년간 근무하였다. 대담한 프린트의 사용 등으로 캐릭터가 강한 디자이너들이 경쟁하는 런던에서 이정선은 특유의 테일러링을 바탕으로 한 모더니즘 패션 미학<sup>4)</sup>을 펼칠 수 있었던 바탕은 패턴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서 완성도 높은 패턴의 옷을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었고, 브랜드 런칭 초기에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패턴 작업을 병행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모델리스트로 경력을 시작한 이정선은 '디자이너라는 창조적 작업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디자이너로서 꿈을 실현하고자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의 여성복 디자인 석사 과정에 지원하였다. 여성복 디자인 교수인 루이스 윌슨(Louise Wilson) 지도하에 다녔던 MA과정은 디자인에 대한 불안감,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던 기존의 생각대신 '나다운 것이 제일 괜찮은 것이다'라는 '디자이너로서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우선은 디자인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담당 교수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어려우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 달라고 제안을 했다. 이정선은 스케치북 대신 바디에 직접 드레이핑을 하고 그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자신의 디자인을 표현하였다. 이정선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석사과정을 마치는 2010년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의 졸업 작품쇼에서 최우수상과 해롯상을 수상하며, 모델리스트에서 디자이너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 2. 외부적 요인

브랜드의 런칭과 성장은 개인적인 재능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며 이 부분은 영향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과 국내외 신진 디자이너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능했다.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의 졸업 작품쇼에서 최우수상과 해롯상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런던패션위크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이 중심에 석사과정 책임자인 루이스 윌슨 교수의 영향력이 컸다. 그녀는 이정선이 자신만의 색을 찾도록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브랜드 런칭과 런던패션위크의 데뷔에 큰 도움이 되었다. 루이스 윌슨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녀의 제자인 크리스토퍼 케인(Christopher Kane), 조너던 샌더스(Jonathan Saunders), 리처드 니콜(Richard Nicoll), 록산다 일린치(Roksanda Ilincic) 등은 에디터에게 높은 관심의 대

상이며 이정선도 그들 중 한명이다.<sup>5)</sup> 영국판 보그의 에디터 사라 무어(Sarah Mower)의 적극적인 지지도 매우 중요하였다.

J. Js Lee 브랜드 런칭은 영국 패션 협회(British Fashion Council)의 뉴젠(NEWGEN) 후원 프로그램으로 가능하였으며 이는 창의적이고, 재능 있는, 차별성이 뚜렷한 신진 디자이너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뉴젠 후원 프로그램은 런던 패션위크에서 무대 위의 쇼, 발표회, 전시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후원자를 매년 정하고 J. Js Lee 브랜드는 2011년 SS부터 2014년 SS까지 선정되어 지원받았다.<sup>6)</sup> 이후 2014년 FW와 2015년 SS는 영국 패션 협회의 패션 포워드상(Fashion Forward Prize)을 수상하고 지원받고 있다. 런던에서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는 배경으로 영국 패션 협회의 지원정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2011년 삼성패션디자이너펀드의 수상자로 정욱준, 임상균과 함께 선정되어 후원금과 대내외 홍보 등을 지원받았고<sup>7)</sup> 패션 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한 코카유립(KOCCA, 한국콘텐츠진흥원 유럽사무소)과 주영한국문화원의 지원도 있었다. 2014년 40세 미만 중 두 번 이상의 컬렉션 판매를 한 디자이너에게 주는 LVMH Young Fashion Designer상의 파이널리스트 30인에 선정되었고 2015년 FW 컬렉션은 올마크의 유럽 지역 대표 후보로 지명되는 등 지속적인 패션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III. J. Js Lee 브랜드 분석

J. Js Lee 브랜드가 외부의 지원과 후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보다 디자인의 차별성이다. 2010년 FW 런칭부터 2015년 FW까지 컬렉션별 특성을 살펴보고 J. Js Lee 브랜드의 주요 디자인 특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2010년 FW 부터 모두 11회의 시즌별 컬렉션이 진행되었고 여기에 2012년 Resort,

2015년 pre-fall이 진행되어 모두 13회의 발표가 연구 대상이며 컬렉션별 특성은 이정선 디자이너의 인터뷰 내용과 주요 패션 잡지, 블로그의 분석 및 설명을 참조하였다.

## 1. 컬렉션별 특성

컬렉션별로 주제, 색상, 조형성, 표현 방법을 비롯한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FW 컬렉션은 10벌로 흰색, 회색, 검정 등 무채색 위주이며 군더더기 없는 깔끔하고 슬림한 외형이 특징이다. 1920년대 러시아 구성주의에서 영감을 받아서 전개되었는데 구성주의는 예술을 실생활에 적용했던 최초의 예술사조로서 이들은 새로운 재료와 색을 조합하여 실생활에 응용하였다. 건축물과 인테리어 분야에 많이 활용되었으며 벽에 돌과 쌀을 붙여 평면적인 공간을 3차원으로 변화시켰다. 여기에서 착안하여 원단 자체를 재단하여 새로운 조형물처럼 3차원 형태로 입체감을 만들었다. 이 기법이 첫 번째 컬렉션의 대표 특성인 단색 원단에 입체형상이 돌출하게 만든 엠보싱 기법과 팝업 칼라이다<그림 1>.

2011년 SS 컬렉션은 19벌로 단순함과 추상에 대한 표현이 특징적이다. 흰색, 짙은 녹색으로 직선을 강조하고 각 아이템은 다른 아이템과 입체적인 선으로 연결된다. 원과 사각형이 단순한 형태의 원피스나 셔츠에 표현되고, 투명한 재질감으로 옷의 느낌을 풍성하게 한다<그림 2>. 2011년 FW 컬렉션은 16벌로 하의가 약간 풍성한 튜립 스타일이고 피카소의 작품 ‘기타’에서 기타의 외곽선이 해체되어 결합된 형상과 유사하게 스커트나 원피스가 겹옷에 얹혀서 표현되었다. 몸에 옷을 껴서 입는 기존의 테일러링 방식과 다르게 옷을 평면적으로 납작하게 한 후 앞부분에 걸쳐 놓았다. 처진 소매, 엠보싱된 솔기, 옷의 전면에 매달린 스커트, 길게 늘린 상의가 특징이다<그림 3>.<sup>8)</sup>

2012년 SS 컬렉션은 24벌로 1920년대 여성의 사회 진출과 왜곡된 사회상을 주제로 앞뒤 옷 길이와 좌우

옷 길이가 차이 나고 좌우 소매 모양이 다른 옷이 제안된다. 솜사탕을 먹다가 옷에 묻힌 조카의 사진에서 영감을 받아 솜사탕이 묻은 듯한 광택감을 살린 소재를 사용하였다<그림 4>. 2012년 RESORT 컬렉션은 싱가포르의 블루프린트 트레이드쇼에서 15점을 발표하였다. 칼라, 커프스를 손바느질 기법으로 입체가 아닌 평면으로 구성하였다. 싱가포르의 습도 높은 더운 날씨에 적합하도록 투명감이 높은 소재의 흐르는 듯한 선을 살리는데 직선의 기계 주름을 사용하여 다양한 길이로 서로 겹치거나 비대칭으로 뒤 부분만 늘어뜨려서 표현하였다<그림 5>. 2012년 FW 컬렉션은 26벌로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그림자에서 영감을 받아 흰색, 크림색, 회색, 검정색으로 기존의 단순함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목 부분 지퍼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감춰진 디테일로 사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의 테일러링에 의한 겹쳐 입기, 비대칭의 블레이저와 주름 치마는 앞과 뒤의 길이가 다르다. 중심선에서 나뉘어 좌우 길이가 다른 재킷의 경우 정확한 재단 기술에 의해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 찌그러짐 없이 표현되고 있다<그림 6>.

2013년 SS 컬렉션은 22벌로 베를린 여행에서 받은 도시 건물의 중성적 느낌이 차분한 색감으로 전개된다. 베를린의 상징물인 베를린 장벽에서 볼 수 있는 아이비의 색감을 사용하고 있다. J. Js Lee의 대표적 디테일인 엠보싱 형태는 보다 정교해진다<그림 7>. 2013년 FW 컬렉션은 28벌로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니트 기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단순한 선은 두툼한 소재를 사용하여 강조되고 부피감을 살려 라일락, 민트, 베이비 핑크 색으로 전개하였다. 솔기가 사리지게 만드는 패턴법과 에이 라인의 상의가 특징적이다<그림 8>.

2014년 SS 컬렉션은 30벌로 런던의 수족관에서 본 미묘한 색을 띄는 해파리에서 영감을 받았다. 분홍, 터키석색의 광택 소재와 레이저 컷을 사용한 작은 원을 촘촘히 덧붙인 소재가 특징적이다. 실루엣은 명확한 외곽선이며 비닐 코팅된 강업체크의 사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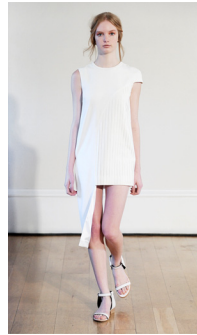
<그림 1> 2010 FW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2> 2011 SS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3> 2011 FW  
(출처: www.jsleelond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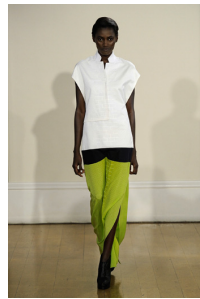
<그림 4> 2012 SS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5> 2012 Resort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6> 2012 FW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7> 2013 SS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8> 2013 FW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9> 2014 SS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10> 2014 SS  
(출처: www.jsleelondon.com)

을 통해 소재 특성을 다소 과감하게 시도하였다<그림 9>, <그림 10>. 2014년 FW 컬렉션은 33벌로 텔레그라프지의 엘리 피터스(Elle Pithers)와 인터뷰에서 ‘휴가를 다녀올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휴가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였다. ‘반지의 제왕’ 영화를 다시 보고 숲속에 사는 엘프들의 모습에서 디자인 특징을 잡았다’고 하였다. 영화의 여주인공 아르웬이 입을 만한 남색과 짙은 녹색인 모헤어의 잔털 느낌을 살린 발목 길이의 체크무늬 코트, 머메이드 형태의 두꺼운 모직 물 스커트, 허리부분에 바깥쪽으로 돌출된 관모양의 주름이 있는 두 겹의 크림색 멜톤 모직 스커트, 두툼한 상의 니트가 주를 이룬다. 숲속 이미지에서 더 거친 느낌을 표현하고자 바닥에 찍힌 타이어의 자국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보다 고전적으로 표현하려고 영국의 전통 문양인 하운드투스 체크와 이미지를 겹

쳐서 문양을 만들었다. 만든 문양을 엠보싱된 두 겹 자카드 저지 코트의 앞부분에 표현하였다<그림 11>, <그림 12>.

2015년 SS 컬렉션은 32벌로 기본 특성인 미니멀하고 현대적인 브랜드 고유의 특성을 재정의하여 보여 주면서 꽃무늬를 이용한 시도가 특색이다. 꽃을 어떻게 미니멀하고 모던하게 표현하는가는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이정선은 말했다. 2013년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예술가 신미경의 작업실에 들렀다가 액체 비누를 틀에 붓고 그 안에 있던 꽃이 반투명하게 비치는 모습에 매료되어 작가 정원에서 가져온 꽃을 납작하게 눌러서 컬렉션에 사용할 이미지를 만들었다. 남색과 청색의 꽃잎이 납작하게 눌린 듯한 이미지는 J. Js Lee의 스포티한 감성과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고 엘르 영국판 에디터 엠마 셀즈(Emma Sells)<sup>9)</sup>는 언급



<그림 11> 2014 FW 무드보드  
(출처: 텔레그라프지 영국판  
2014.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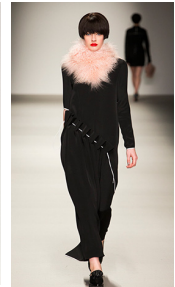
<그림 12> 2014 FW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13> 2015 SS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14> 2015 Pre Fall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15> 2015 FW  
(출처: www.jsleelondon.com)

하고 있다. 천의 가장자리를 접어서 액자의 틀처럼 보이게 하며 라미네이트 처리된 먼 소재는 부드러운 조각품처럼 보인다고 하였다. 스커트의 앞 뒤 길이가 차이 나게 주름을 잡아 늘어뜨린 형태와 허리선을 따라 뒤로 갈수록 선을 처지게 디자인한 구조적 선이 특징이다<그림 13>.

2015년 Pre-Fall 컬렉션은 23벌로 흰색 상하의에 검정색 선이 강조되거나 부분적으로 소재를 다르게 하여 체크무늬를 배치하였다. 보다 캐주얼한 운동복 느낌이며, 절제되며 단정한 특성이 강하게 표현되어 엄격한 외관선과 앞, 뒤를 명확히 구분 짓는 굵은 선을 사용하고 있다<그림 14>. 2015년 FW 컬렉션은 어린 시절에서 영감을 받아 어머니가 손뜨개로 떠준 옷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된다. 바깥놀이로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더러워진 어린 시절의 사진에서 디자인이 시작되고 옷의 디테일도 여기에서 나왔다. 흰색, 회색, 검정의 절제된 색 사용과 대비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짝 묶은 끈은 금방이라도 풀릴 것 같은 장난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영국판 보그의 에디터 제시카 범퍼스(Jessica Bumpus)는 J. Js Lee 컬렉션은 잔 걱정이 없고 거칠 것이 없는 약간의 남성적인 특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쿨팅과 굵스굵스한 스타일로 약간의 색시함을 표현한다고 한다. 부드럽게 출렁이는 넓은 주름의 우아함, 칼라 모양에서 시작되는 듯한 나긋나긋한 주름 이와 대비되는 옷의 뒷면에 핑크색으로 길게 포인트를 주는 강렬함으로 인한 상

반된 속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그림 1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 시즌 디자인의 영감은 예술사조, 여행, 어린 시절 추억에서 시즌별로 자유롭게 선택되어 표현되며, 전체적인 조형적인 특성은 단순하고 절제된 형태, 단색 위주의 표현, 장식적인 디테일의 배제가 주를 이룬다.

## 2. 디자인 특성

앞에서 J. Js Lee 브랜드의 시즌별 특성을 살펴본 이유는 작품을 구성하는 시각 요소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시즌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디자인 특성이 무엇인지 추출하고자 한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 혹은 방식은 그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정체성의 사전적 정의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sup>10)</sup>이며 이는 본질적인 면에서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것이다. ‘어떤 사물이 변화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물로 인식되거나 존재할 수 있다면 또한 우리가 변화된 사물을 변화를 겪기 전의 사물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그 사물에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다.’<sup>11)</sup>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우는 차별화된 디자인 특성이 정체성의 핵심요소이며 여러 시즌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J. Js Lee 브랜드의 주요 디자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16> 2010 FW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17> 2015 SS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18> 2015 FW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19> 2014 SS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20> 2015 Pre-Fall  
(출처: www.jsleelondon.com)

### 1) 절제된 형태

J. Js Lee 브랜드는 단순한 외곽선, 장식적인 디테일의 부재, 단색의 사용이 주를 이룬다. 서양복의 역사를 보면 장식 욕구는 신분과 경제적 지위를 표현하고자 점진적으로 팽창하였다. 장식이 되풀이되고 반복될수록 처음의 목적에서 벗어나 장식의 명분이나 필요성에서 분리되고 장식은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 해석하는데 봉사하지 않게 된다.<sup>12)</sup> 그런 의미에서 장식의 배제는 본질적인 표현을 위한 압축이라 할 수 있다. 장식의 배제를 근간으로 하는 J. Js Lee 브랜드는 바지, 원피스, 긴 재킷 등 여러 겹을 겹쳐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다거나 무피감이 느껴지지 않고 여러 층이 압축되어 있는 듯하다.

절제된 형태는 유연한 선의 흐름으로 전개되는 경우와 보다 조형성이 강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6>, <그림 17>, <그림 18>은 몸을 감싸는 과장되지 않은 유연한 선을 사용하여 보다 감각적으로 보인다. <그림 19>와 <그림 20>은 절제된 선이 사용된 조형성이 강한 형태로서 삼성패션디자인펀드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설명글에서 화려하고 복잡한 런던패션 위크의 분위기와 달리 단순하고 절제된 선의 지향에서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 2) 신비한 패턴

J. Js Lee 브랜드는 고난도의 방법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구조의 패턴을 선보이는데 <그림 21>과 같이 2010년도 FW 컬렉션의 주된 특징인 팝업 칼라이다. 이는 칼라가 중간에 튀어나온 듯 혹은 사라지는 듯한 형태가 특색이다. <그림 22>의 2011년 SS 컬렉션에도 팝업 칼라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23>의 경우도 언뜻 보면 라펠과 칼라가 기존의 형태와 비슷하게 보이나 상체의 오른 편 칼라는 엠보싱 되어 칼라 모양이 윤곽만 돌출된 평면이고, 왼편의 경우는 라펠부분이 가로로 나뉘어 아래 부분만 라펠이 접힌 일반적인 형태이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봐야 느낄 수 있는 반전의 재미를 주는 요소이다.

정교한 패턴의 기법은 칼라 형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르게 주름의 요소가 옷의 중간에서 불쑥 나온 듯한 효과를 주는 방법으로도 나타난다<그림 24>. 칼라의 기본적인 형태를 새롭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옷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형태의 틀을 바꾸고자하는 시도가 칼라의 변형, 주름의 표현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는 패턴 기술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다.

### 3) 남성적 요소

보다 엄격하고 절제되며 장식이 배제된 형태는 남성적인 특성을 띤다. 19세기말 남성의 사회생활과 더불어 ‘위대한 포기’라고 일컫는 근대적인, 장식이 없는 신사복의 착용이후 장식은 더욱 여성적인 의복의



<그림 21> 2010 FW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22> 2011 SS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23> 2011 FW  
(출처: <http://www.sebastianpopov.com/j-js-lee>)



<그림 24> 2015 Pre Fall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25> 2013 SS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26> 2014 SS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27> 2015 Pre Fall  
(출처: www.jsleelondon.com)

전형이 되었다. J. Js Lee 브랜드에 대해 남성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형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재킷과 긴 길이의 튜닉을 바지 위에 여러 겹 걸치는 착장방식 <그림 1>, 테일러링이 추가 되는 작은 칼라의 재킷 <그림 17>, 기능적인 보머 재킷과 같은 남성적 아이템에 직선적인 아이템의 조화<그림 25>, <그림 26>, 스포츠 웨어의 사용<그림 27>, 무채색의 사용 등이 남성적이다. 보머 재킷과 스포츠 웨어와 같은 남성적인 아이템의 사용은 겨울보다는 봄여름 컬렉션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의복의 소재가 얇고 가벼워지다 보니 테일러링 대신에 선택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4) 일상적 소재의 변용

전반적으로 직선적인 외곽선으로 구성된 절제된 형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소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특색이다. 소재를 기존과 다르게 다루어 일반적으로 의복에서 3차원인 형태를 2차원으로 만들거나, 또 다른 층을 만드는 차원의 변화로 표현한다.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줄업 작품에서 선보인 엠보싱 효과로 드러난 칼라모양은 익히 알고 있는 칼라의 형태가 윤곽선만 돌출된 채 겹면 아래층에 감춰져 있다<그림 28>. 여기에서 차원





<그림 28> 2011 SS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29> 2011 SS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30> 2012 Resort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31> 2012 SS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32> 2012 FW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33> 2013 FW  
(출처: www.jsleelondon.com)

을 달리했다는 의미는 칼라가 그 자체로 3차원의 형상인데 이를 2차원으로 모양만 남긴 채 몸판과 평면적으로 만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림 29>는 다른 소재로 칼라의 차원을 변형시킨 예이고 <그림 30>은 오픈 위크의 방식으로 평면 칼라를 몸판과 연결시킨 작품이다.

각 시즌마다 주제표현은 소재선택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소재의 변용은 특별하고 복잡한 방식이 아닌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소재와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2012년 SS 컬렉션의 솜사탕이 문은 이미지는 옷감에 비닐 코팅 작업으로, 2012년 FW 컬렉션의 비행기 창밖으로 본 구름의 형상은 원피스 아래 부분에 실을 편직하는 기법으로 표현된다<그림

31>, <그림 32>. 소재에 물리적인 변형 없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첫째는 부피감이 크거나 두꺼운 가죽과 같은 느낌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단순한 실루엣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키거나 둘째는 투명감 있거나 광택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빛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이다<그림 33>. 절제된 형태는 단순한 선과 함께 소재가 지닌 기본적인 물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 5) 비대칭 구성

J. Js Lee 브랜드는 단순한 외관이 특징적인데 디자인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 비대칭 구성이 여러 시즌의 작품에 빈번하게 나타난다. 앞, 뒤 혹은 좌, 우의 옷 길이의 차이, 볼륨감이나 모양의 차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대칭 구조는 옷이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감이 깨질 수 있는데 이를 재단법으로 좌우의 무게감을 적절히 배분하여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설계하여 시각적 변화를 안정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 FW 컬렉션은 손뜨개질이 주요 디자인 영감으로 흠뻑한 것과 같은 크게 잡은 주름이 디자인의 특색인데 앞부분의 풍성한 주름은 앞부분에만 있고 뒤는 단순한 형태의 원피스 모양으로 마감하고 있다<그림 34>, <그림 35>.



<그림 34> 2015 FW  
(출처: www.jsleelondon.com)



<그림 35> 2015 FW  
(출처: www.jsleelondon.com)

#### IV. J. Js Lee 브랜드의 미적 특성

J. Js Lee 브랜드에 관한 논의는 ‘브랜드에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브랜드의 힘은 그 자체가 지니는 고유성에서 유래하며 고유성은 변화를 피하는 중에도 변하지 않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고유한 특성은 두 단계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데 첫째는 다른 대상과 시각적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고유의 형태 특성이 무엇인지 밝히고 둘째는 고유의 형태 특성에서 받는 느낌과 정서의 감성적 특성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미적 의미를 논함으로써 가능하다.

##### 1. 클리니즘

J. Js Lee 브랜드에 대해 사라 무어는 ‘질 샌더를 잇는 최고의 미니멀리스트’라고 칭하고, 미국 보그 편집장 안나 윈투어(Anna Wintour)도 미니멀리즘적 요소를 지칭하면서 뉴욕 패션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디자인<sup>13)</sup>이라 평하였다. J. Js Lee의 디자인은 간결하고 절제된 형태, 차분한 단색의 사용, 장식적인 디테일의 배제로 미니멀한 특성을 지녔다고 브랜드가 묘사된다. 이에 대해 이정선은 옷이 단순하거나 흰색과 검은색이면 미니멀하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과 자신

의 옷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는 모두를 간결화한 클리니즘(Cleanism)<sup>14)</sup>이라고 지칭하며 미니멀리즘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정선이 말하는 클리니즘은 의복을 구성하는 여러 층을 관통하는 깊이감에서 나오는 단순성으로 자질구레한 요소 없이 매끈한 실루엣을 완성하기 위해서 소재, 안감, 패턴 모든 것에 완벽을 기하는 작업을 지칭한다고 하였다.

J. Js Lee 브랜드는 장식 없음, 절제된 형태, 기능적인 요소들로 인해 남성적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정선이 지향하고 표현하고자하는 성은 ‘남성적인가 아니면 여성적인가?’ 이정선은 절제된 형태에서 남성 혹은 여성이 벗겨워지기 전인 옷을 입은 인간 그 자체를 드러내고자 한다.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 이전의 자각이 옷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 극도로 절제된 형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며 성에 대한 표현도 무척 절제되고 단순화시키고 있다. 선, 소재, 색채, 형태의 사용에 있어서 클리니즘의 추구는 본질에 더 가까이 근접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해석된다.

##### 2. 역설과 반전의 방식

J. Js Lee 브랜드의 옷은 단순하기 때문에 만들기 쉬운 옷처럼 보이고 단순한 옷은 차별성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J. Js Lee 브랜드의 옷을 가까이 관찰하면 결코 만들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독특한 재단 기법으로 만든 팝업 칼라를 예로 들 수 있고 또 다른 특징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옷 길이의 차이, 앞 뒤판 부피감의 차이, 앞 뒤판 모양의 차이에서 비대칭의 구성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J. Js Lee 브랜드의 비대칭의 빈번한 사용은 미니멀리즘과 거리두기를 통한 차별화라 할 수 있다. 미니멀 아트가 근본적인 이투러고 한 혁신은 화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위계질서의 부정이었다. 보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원근법 등 근대 회화 기법을 동원하여 드러내어 그림에서 전달하고 싶

은 주제를 강하게 전달하고 보다 선명하게 표현한 전통 방식을 미니멀 아트는 부정하였다. 그에 대한 미니멀 아트의 실천 방안이 반복과 대칭이다.<sup>15)</sup> 같은 것의 무한 반복은 위계질서를 담아 낼 수 없는 것이다. 미니멀리즘의 주요 특성이 대칭과 반복이라고 할 때 J. Js Lee 브랜드는 대칭성 보다는 비대칭의 기법을 다른 브랜드보다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미니멀리즘과 거리두기는 2014년 SS 컬렉션 직후 제시카 범퍼스(Jessica Bumpus)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미니멀리스트’가 아닌 ‘클리니스트’라고 불리길 원한다고 하였고, 이정선은 자신을 깨끗하고 새로운 옷을 만드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역설과 반전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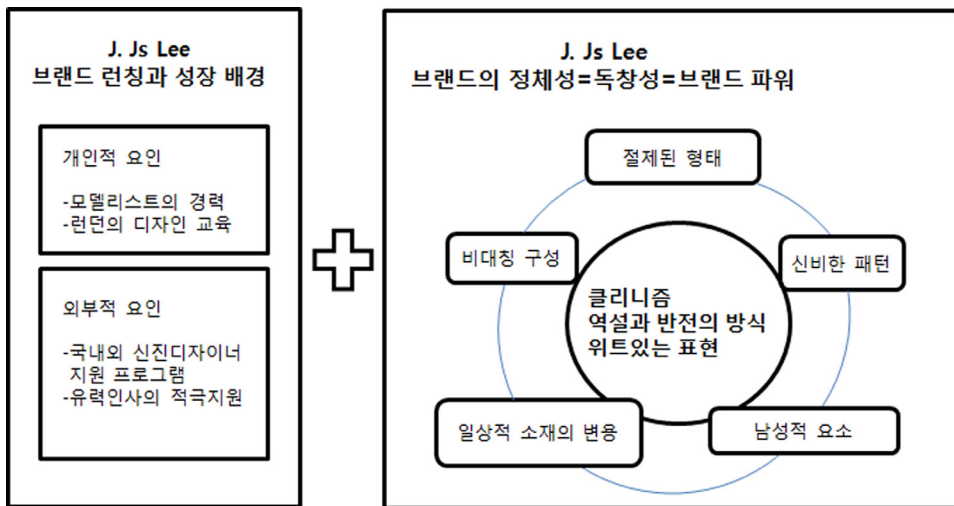
### 3. 위트 있는 표현

J. Js Lee의 디자인은 절제된 조형성 내에서 변화를 피하기 때문에 다른 옷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극도로 절제된 감성은 시즌별 주제에 따라 변화되기는 하지만 여기에 이정선이 덧붙이는 디자인 강점은 정교한 패턴 작업으로 생성되는 길으로 드러나지 않는 위트 있는 표현이

다. 재킷에서 볼 수 있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칼라형태, 엠보싱 처리된 허리선과 칼라, 앞부분의 풍성한 주름과 대비되는 뒤 부분의 타이트한 스커트가 그 예이다. 코트 또한 앞에서만 보면 옆 부분에 소매 앞뒤로 공간이 숨겨져 있는지 결코 알 수 없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감춰진 특성에 대해 영향력 있는 패션 블로거인 스타일 버블(Style Bubble)은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정선은 작품에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착용자가 찾아서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를 담아놓고 있다. 시각적으로 요란하게 아우성치는 외침이 아닌 보이지 않는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만든다.

위트 있는 표현은 2015년 FW 컬렉션에 잘 드러나는데 어린 시절 손뜨개 옷에서 영감을 받아 옷의 앞부분에만 큰 주름을 몇 개 늘어뜨린 후 가느다란 줄로 묶어 놓았다. ‘가느다란 끈이 풀린다면’이라는 상상을 자극하는 재미를 포함한 디자인을 통해 착용자와 소통하고 있다.

앞에서 J. Js Lee 브랜드 분석을 통하여 디자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미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요약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J. Js Lee 브랜드의 특성

## V. 결론

J. Js Lee 브랜드는 런던에서 디자인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영국패션협회의 뉴젠후원 프로 그램과 런던 패션계의 영향력 있는 여러 조력자의 지원하에 성장할 수 있었다. 브랜드를 런칭하고 세계 시장을 상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J. Js Lee 브랜드의 정체성을 논하고자 기존에 전개된 13개의 컬렉션에 사용된 주제와 시각적 특징을 살펴본 후 공통으로 나타난 주요 디자인 특성을 도출하고 그 특성이 감성에 끼치는 미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J. Js Lee 브랜드의 주요 디자인 특성은 단순하고 장식성이 없는 깔끔한 외관의 절제된 형태, 차별화된 신비한 패턴, 남성적 요소의 사용, 일상적 소재의 변용, 비대칭 구성이다. 이를 통해 클리니즘, 역설과 반전의 방식, 위트 있는 표현이 가능하고 이로써 브랜드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다.

이제 런칭한지 5년 정도 된 신진 디자이너를 연구하다보니 관련 서적이거나 디자인에 관한 분석 자료가 적어서 인터넷 관련 자료가 많다는 점과 앞서 언급한 미니멀리즘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보다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브랜드 성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이민선 (2014). 미학적 개념으로 본 이석태 디자인 분석,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4(2), pp.157-167.
- 2) 이진민 (2014). Cy Choi 최철용의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미적 특성,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4(4), pp.1-17.
- 3) 김윤희 (2014). 스티브 J. & 옌니 P.의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미적 특성,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5(1), pp.123-134.
- 4) 구글(검색어: 이정선과 미니멀리즘), 자료검색일 2015. 8. 13. <http://www.fashionbiz.co.kr/WW/?cate=2&idx=143565>
- 5) 구글(검색어: J. Js Lee), 자료검색일 2015. 7. 14. <http://fashion.telegraph.co.uk/article/TMG11091310/London-Fashion-Week-opens-with-Jackie-JS-Lees-Asian-simplicity.html>
- 6) 구글(검색어: 영국패션협회), 자료검색일 2015. 7. 14. <http://www.britishfashioncouncil.co.uk/>

- 7) 구글(검색어: SFDF 공식 홈페이지), 자료검색일 2015. 7. 14. <http://www.sfdf.co.kr/index.jsp>
- 8) 구글(검색어: J. Js Lee AW11), 자료 검색일 2015. 7. 14. <http://slashtrokemagazine.com/2011/04/17/show-notes-jjs-lee-lfw-aw11/>
- 9) 구글(검색어: J. Js Lee 2015 SS), 자료 검색일 2015. 7. 14. <http://www.elleuk.com/fashion/news/dispatches-from-london-j-js-lee-eudon-choi-and-daks>
- 10) 네이버(검색어: 정체성), 자료검색일 2015. 7. 14.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C%A0%95%EC%B2%B4%EC%84%B1&query=%EC%A0%95%EC%B2%B4%EC%84%B1&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C%A0%95%EC%B2%B4%EC%84%B1&query=%EC%A0%95%EC%B2%B4%EC%84%B1&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 11) 탁석산 (2000). 한국의 정체성, 서울: 책세상, p.28.
- 12) Arnheim, R. (1954).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옮김 (1989). 서울: 기린원, p.188.
- 13) 구글(검색어: SFDF), 자료 검색일 2015. 8. 15. <http://www.sfdf.co.kr/winners/index.jsp?id=201101>
- 14) 구글(검색어: 이정선 클리니즘), 자료검색일 2015. 8. 15.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125867](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125867)
- 15) Batchelor, D. (1997). 미니멀리즘, 정무정 옮김 (2003). 서울: 열화당, p.17.

## Analysis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J. Js Lee's Collections

**Choi, Yoon Mi**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re have been a lot of interest and expectations in discovering the next-generation designers that will play a leading role in a changed global fashion marke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designer that stands out from activities internationally. Jungsun Lee, Eudon Choi, Rejina Pyo are working to launch their brand in London. Lee was selected as one of the talented emerging designers who participate in London Fashion Week currently. This paper discussed the process of the launching and growth of the brand in London and analyzed the unique and aesthetic features in Lee's design from 2010 F/W collection to 2015 F/W collection. It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with Lee on these subjects. Lee was motivated to launch the brand because of personal and external factors. The characteristics of Lee's design consist of the simple and understated forms of clean appearance, no decoration, the differentiated mystical patterns, uses of the masculine element, transformations of common materials, and asymmetric configuration. Lee tried to express the cleanism on her work instead of the minimalism. The cleanism is to complete a smooth silhouette with simplicity and to pursuit the perfection without the chore elements as Lee mentioned. Also Lee intended to represent the way of paradox and the effect of inversion through asymmetric structure. The academic discussion and analysis about the process of the brand launching overseas and about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talented emerging fashion designer would be helpful to those who want to be a follow-up designer in the field of the academy and the fashion industry.

Keyword : J. Js, Lee brands, Lee Jungsun, cleanism, emerging fashion designer, London Fashion Week

